



‘오지호미술상’ 본상 방정아 작가
예술과 공동체 사유 ‘묻다, 묻다’ 전
광주시립미술관 내년 1월18일까지

일상부터 성찰까지…예술이 ‘묻다’



2024 오지호미술상을 수상한 방정아 작가의 ‘묻다, 묻다’ 전이 시립미술관에서 내년 1월 18일까지 열린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작품 설명을 하는 방 작가.

서양화단의 선구자 오지호(1905~1982)는 자연 고유의 색채를 매개로 민족 정체성을 구현했다. 생전의 그는 예술과 삶을 일치하고자 하는 철학을 견지하며 창작활동을 펼쳤다.

오지호의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2년 광주시에서 제정한 ‘오지호미술상’(서양화 부문)은 현재까지 본상 32명, 특별상 21명이 수상했다.

현재 시립미술관(관장 윤의)에서는 2024 오지호미술상 본상 수상작가인 방정아의 ‘묻다, 묻다’(내년 1월 18일까지 본관 5, 6전시실)전이 열리고 있다. 본상 수상자는 지난해 개인전 기회와 창작활동비 1000만원이 수여되는 관례에 따라 전시가 마련된 것이다.

얼마 전 미술관 전시실에서 만난 방 작가는 “자연과 일상, 개인적인 서사 등을 매개로 현실을 회복에 담아 왔다”며 “이번 전시는 사회, 여성, 생태, 일상 등 네 핵심 키워드를 모티브로 전개된다”고 전했다.

주제이자 신작인 ‘묻다, 묻다’는 역사를 질문하는 ‘묻다’의 의미와 땅에 묻는다, 라는 뜻의 ‘묻다’가 중의적으로 투영돼 있다. 이에 대해 최수연 학예사는 “해방 공간의 간동 속에서 고뇌했던 오지호가 시대의 펜으로 기에 갇히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에서 태어난 방 작가는 흥미 대를 거쳐 동서대 IT & 영상전문대학원 영상디자인과를 졸업했다. 그동안 자신만의 개성이 투영된 시각 언어로 차별화 된 리얼리즘을 구축해왔다. 이 같은 활동이 오지호미술상의 수상이라는 결실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술상 심사위원회는 “작가가 형상미술의 문맥을 지키면서도 기후변화, 젠더 문제 등 동시대 핵심 이슈를 다루며 회화의 독자성을 제시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모두 40점. 예술가로서의 고민과 실존의 무게를 사유하게 하는 그림들이다. 전시 구성은 5개 세션으로 짜여져 있다.

‘사회’ 섹션은 작가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주가 된다. ‘아침 버스를 기다리는 구로공단의 여성들’, ‘얼룩진 손’ 등은 거대한 담론보다 일상의 시각언어로 당대 사회 모순을 드러낸 작품들이다.

‘여성’ 섹션은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모티브로 한다. 방 작가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가부장적 문화가 삶 속에 깊숙이 침운돼 있었다”며 “여성은 추상화된 존재가 아닌 실제 살아 숨 쉬며 존재하는 구체적 주체라는 사실을 작품에 담아냈다”고 언급했다.

자연, 생태에 초점을 맞춘 섹션도 있다. ‘생태’ 섹션은 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을 활기하는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재개발구역의 오동춘’, ‘핵 헥 Nuclear Nuclear’ 등 작품은 작가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다.

마지막 섹션 ‘일상’에는 스치듯 지나가는 우리 삶에서 모티브를 얻은 그림들이 걸렸다. 뉴스나 작가의 경험에 모티브가 된 ‘좀 흔들리면 어때’, ‘열정을 대하는 태도’ 등은 미시서사가 공감의 메시지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방 작가는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이 아닌 제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를 향한 ‘발언’을 한 작품들’이라며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서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사유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의 관장은 “작품을 보면 알겠지만 방 작가의 작품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부터 깊은 사유와 성찰을 필요로 하는 현실 문제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다”며 “오지호 선생이 예술가와 한 인간으로서 고민했던 것처럼 방 작가의 작품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의미를 말했다.

/글·사진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 모두의 집, 아시아’를 지키기 위한 어린이들의 모험

ACC 어린이문화원 체험형 전시
‘판타지 인벤토리’ 등 놀이 콘텐츠

물건을 맞바꾸며 잊힌 기억을 찾아 나서고, 빙하의 찬바람을 막아줄 나만의 가면을 만들고, 사라진 숲을 다시 불러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관장 김명규·ACC재단)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특별전시와 새 단장을 마친 어린이체험관을 선보이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배울 ‘문화놀이터’를 열었다.

내년 3월 2일까지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는 어린이 특별전 ‘판타지 인벤토리’가 열린다.

ACC 어린이문화원과 함께한 지난 시간을 되짚고, 앞으로의 미래를 상상하도록 구성된 전시로 단순 관람이 아닌 ‘개임형 체험’ 방식이 특징이다. 아이들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과거의 기억을 수집하고 그 조각들을 모아 미래를 구하는 모험을 펼치게 된다.

전시는 총 9개의 임무로 구성된다. 관람객은 먼저 자신만의 출입증을 만든 뒤 단계별 퀘스트를 거치며 ‘미래를 구할 기억 아이템’을 모아 나간다. ‘인공지능 루니’를 깨우기 위해 빙하 요정의 춤을 따라 추거나, ‘기억의 강’에서 가족들의 추억을 되돌아보며 기억 여행



3일 재개관한 ACC 어린이문화원의 체험관 상설전시 ‘우리 모두의 집, 아시아’.

/김진수 기자 jeans@

을 하는 등이다. 임무를 모두 완수하면 쉬링크페이퍼로 직접 만드는 ‘나만의 기링’을 만들 수 있다.

전시에는 김설아, 천영록, 표인부, 루카스 실라버스, 장전프로젝트, 황문정, 소보람, 이연숙 등이 참여했다.

새롭게 문을 연 어린이체험관의 주제는 ‘우리 모두의 집, 아시아’다. 바다와 습지, 초원과 산 등 아시아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물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어린이들은 전시장 곳곳의 놀이·체험 콘텐츠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삶의 방식, 그리고 오늘날 더욱 중요해진 생태적 가치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다.

김명규 ACC재단 사장은 “AI 기술과 게임 요소를 더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이 아시아 문화와 환경에 대해 보다 친근하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료 14세 미만 5000원·14세 이상 3000원, ACC 재단 누리집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아이들 그림으로 피어난 우리유산

국립광주박물관, 31일까지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작품전’

문화유산은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문화의 가치와 역사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대상들이다. 어린 시절 보고 느꼈던 유산에 대한 감성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중요한 문화적 체험으로 각인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그런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명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우수작품전’. 이번 전시는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홍선)이 지난 8월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수상작을 일반 관람객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는 31일까지



었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 그림기 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 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평했다.

한편 전시 작품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감상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2월호

●●●



‘문화와 함께 아듀 2025 깊은 감상’

남도의 겨울 정취 ‘빛으로 물들다’

“문화로 한 해를 정리합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12월호가 ‘문화와 함께, 아듀 2025’를 특집으로 독자들을 찾아왔다. 빼곡히 흘러간 한 해의 끝자락에서 문화로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하지만 깊은 감상의 시간을 선물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겨울바람이 골목을 스치는 12월, 광주·전남 곳곳의 문화기관들은 한 해 마지막 무대를 올리며 관객을 맞는다.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공연장을 찾아 한 해 동안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을 나누는 송년 공연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명한다.

밖으로 나서기 어려운 겨울밤을 위한 ‘안방 문화송년회’도 눈길을 끈다. 감성 드라마부터 음악영화, 자연·여행 영상, 미식·인물 다큐까지 집을 작은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콘텐츠들이 풍성하게 마련됐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호암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보성우종미술관 등 국내 주요 미술관이 기획한 연말 대형 전시도 다루며 그림이 주는 치유와 위로를 집중 조명한다. 시끌벅적한 술자리 대신 전시·공연·서점·미술관을 찾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문화송년회 트렌드’와 이에 공감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함께 담았다.

연재 코너 ‘복합문화공간, 도시의 미래가 되다’에서는 서울 예술의전당을 탐방한다. 올해 ‘마르크 샤갈 특별전, 비운의 타

임’ 등 블록버스터급 전시로 미술계의 이목을 끈 예술의전당의 기획력과 공간적 의미를 자세히 전한다.

‘문화 회재’에서는 국내 최초의 책방 마을을 문을 연 고창 서점마을 이야기를 다뤘다. 영국 헤이온와이를 연상케 하는 여섯 개 책방의 탄생 과정과 지역 문화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명한다.

‘2025 문화계 결산’에서는 문학·전시·공연 분야의 한 해를 되짚는다. 문학인들의 꾸준한 창작 활동과 다양한 교류,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70주년의 의미, 지역 공연예술의 성과와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한 프로그램 등을 폭넓게 묶었다.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는 ‘남도의 겨울, 빛으로 물들다’를 테마로 겨울 남도의 정취를 소개한다. 차기운 공기 속에서 빛·눈·바다·노을이 만들어내는 풍경을 따라가는 감성 여행지를 담았다.

‘남도 체험로드’는 생태문화도시 담양을 찾는다. 담양만의 자연과 정원문화, 가사문학의 풍류가 깃든 소쇄원·식영정·면양정, 대담미술관·소아르 등 예술 공간을 통해 ‘담양스러움’의 본질을 들여다본다.

이밖에 조인호의 ‘키워드로 읽는 광주·전남 미술사·예술·창신의 묵향, 의재와 남농 회화’, 배국남의 ‘2025 대중문화 X 파일’ 등 다양한 고정 코너도 풍성하게 실렸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띠뜻한 연말 채우는
‘재즈’ 감성 속으로



박수용 교수와 재즈오케스트라의 지난 공연 모습.

(흥학관 제공)

‘아트스페이스 흥학관’ 1주년

13일 재즈오케스트라 음악회

광주 동구의 복합문화예술공간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1920년대 지역 교육·문화의 중심이었던 옛 흥학관 건물을 재정비해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후 강연·공연·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 향유의 폭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오후 6시 정통 재즈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연다.

1년 동안 흥학관을 찾아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다. 연말 분위기를 뜻밖하게 피뜻하게 채우는 무대다.

관람료 1만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